

해외증시 훈풍? 매수 할까 기다릴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중국발 긴축·미 경제침체 당분간 압박

1,350선 까지 떨어져야 가격 매력 부각... 우량주 중심 노력할 만

글로벌증시가 반등하고 있으나 약재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조정분위기는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글로벌증시는 전날 기술적인 지지구간에서 반등했으나 엔캐리트레이드(일본의 저금리 자금을 빌려 고수익자산에 투자한 자금) 청산 우려, 중국발 긴축우려,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등이 당분간 증시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증시 조정 분위기가 최소 이달 중순이나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가격조정의 폭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주식의 매수시점을 언제로 결정할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전날 대비 0.57% (8.02포인트) 오른 1,410.

95로 마감됐으나 국내 증시와 높은 동조화를 보여준 닷넷이 225지수는 0.47% 하락한 16,764.62에 장을 마쳤다.

<1,350선까지 조정 염두에 뒤야=국내 증시는 수급이나 기업실적,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부에서 상승동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해외증시가 반등해야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증시가 지난해 6~7월 이후 20% 가량 올라 가격 부담이 높은 상황

이어서 약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05년 이후 200% 이상 급등했다.

따라서 글로벌증시는 최근 불거진 약재들에 반응하며 가격매력이 부각되는 시점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증시의 가장 큰 약재는 장기간 많이 올랐다는 것"이라며 "1,350선까지 떨어뜨려야 가격매력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조정은 짧은 기간에 강도높게 진행되고 상승은 오랜기간 서서히 이어지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끝나면 2~4분기 초·중반부터 연말까지 상승장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매수시점은 이견=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더라도 낙폭과대 우량주는 분할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매수시점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최근 급락한 우량주들의 경우 추가 하

락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매수에 나서야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코스피지수의 조정폭이 최근 고점 대비 5%도 안되기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가격매력이 부각된다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증시는 해외증시에 비해 지난 1년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코스피지수는 1,370~1,380선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우량주들에 대해 저가매수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주가하락·환율 상승·수출불안 등 국내 경제 파급

KDI 경제동향 보고서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불안이 국내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의 환경도 낙관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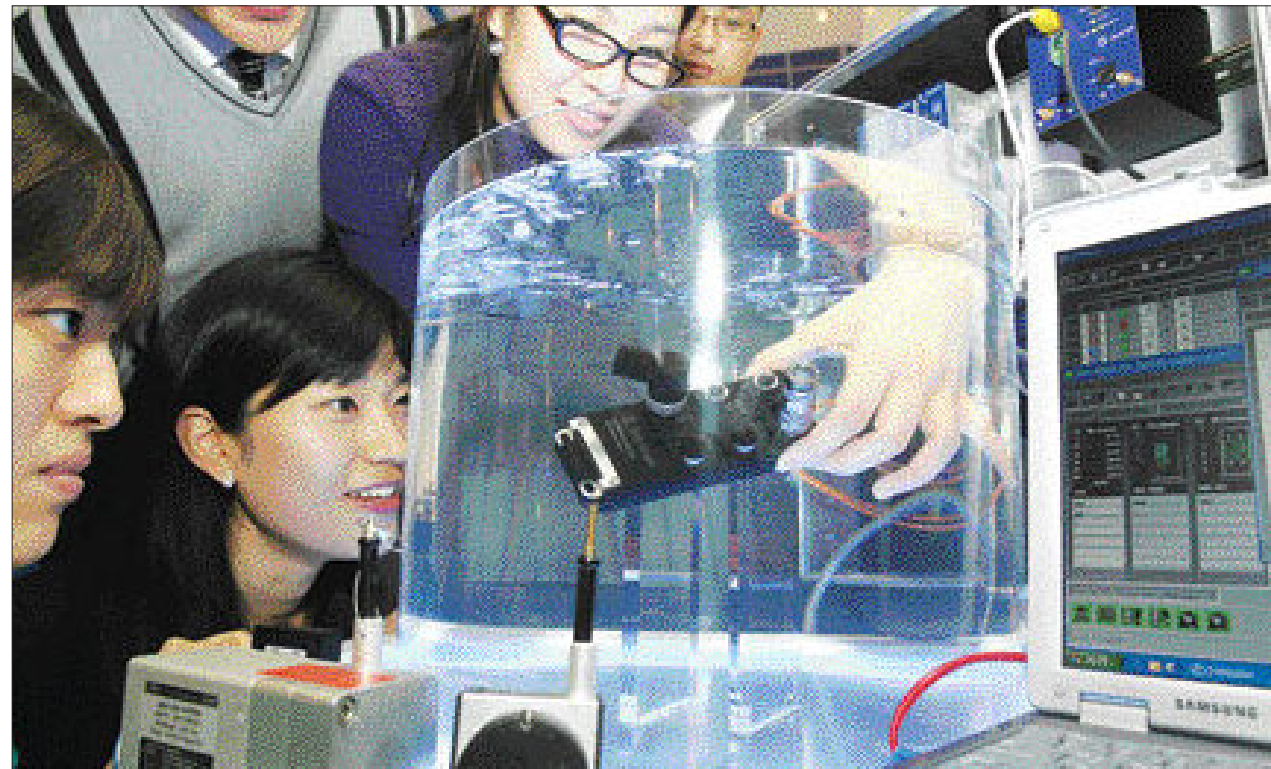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상황이 다소 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금융시장에 파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국내 금융시장이 2월에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2월 말 중

국 증시의 급락에 따른 해외증시의 동반 약세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3월 들어서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특히 "유로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재개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고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작년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지속했던 중국 증시가 조정됨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급변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제자동화종합전

제18회 국제자동화종합전(aimex 2007)이 열린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주)토마스케이블이 극지와 바다 속 등 특수 환경에서도 산업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최상의 통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 장비(OTOPUS 8M)를 물속에 넣어 시연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관리수지 9조 6,000억 적자

지난 2005년도 정부부문 관리대수지가 10조원에 육박하는 9조6000억원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의 지출을 나타내는 통합재정 규모는 GDP의 30.1%인 24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는 2005년도 정부부문 전체 통합재정 결산결과 정부부문의 관리대수지는 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통합재정수지는 GDP의 0.3%인 2조5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의 경우 통합재정수지가 2조5000억 원 흑자를 보였고 공적자금 상환원금 12조원이 들어왔지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액 23조6000억 원의 제외하면 관리대수지는 9조6000억원의 적자였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순수재정활동의 결과인 관리대수지가 적자를 보인 것은 지난 2005년에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대외여건이 악화돼 국내경기의 회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5년 기준 GDP에서 통합재정규모가 차지하는 규모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으며 양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졸자 구직기간 평균 10.7개월

지난해 취업에 성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평균 10.7개월이 지나서야 첫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jobkorea.co.kr)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난해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4년제 대학 졸업자 1천500명을 상대로 취업준비기간 등을 조사한 결과 처음 정규직 취업성공까지 걸린 평균기간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구직기간은 10~15개월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미만 18.5%, 3~6개월 14.8%, 6~10개월 9.8%, 25개월 이상 9.2%, 15~20개월 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일자리를 구한 경로는 공개채용이 3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시채용(28.9%), 친인척·지인 소개(22.0%), 헤드헌팅(4.8%), 특별채용(3.9%) 등의 순으로 집계돼 일반직인 공채나 수시채용 외에 인맥도 주된 취업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 '성공적인 면접'(22.3%), '직무관련 아르바이트나 인턴경험'(20.1%), '눈높이 낮추기'(13.8%), '취업에 유리한 전공'(11.7%), '호감가는 외모'(10.0%)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기업은행 강권석 행장 연임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7일 금융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강권석 현 기업은행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었으나 강권석 현 행장과 장병구 수협 대표를 놓고 최종 선택을 하지 못했다. 강 행장은 공공기관장 '연임 불가' 원칙이 걸림돌이 됐고 장 대표는 신변상의 문제 코드 인사 논란이 제기돼 최종 결정 과정에서 다소 시선이 소외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추천위원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두 사람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올렸고 대통령이 고심 끝에 강 행장을 낙점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기업은행 은행장 추천위원회는 장 대표와 강권석 현 기업은행장을 재정경제부에 추천했고 재경부는 이 명단을 그대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000원 수출에 부가가치 창출 647원

日 892원보다 크게 낮아... 소재·부품 대외 의존도 높아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 때문에 상품 1천원을 수출할 때마다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으로 일본의 892원에 비해 크게 낮고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취업자수 비중은 60%를 돌파했으나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취업자의 고학력화·전문화가 진전되는 것과 함께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산업

연관표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 따르면 총공급에 대한 수입과 수출비중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는 1995년 24.9%에서 2000년 29.2%로 높아진 후 2003년에는 26.9%로 둔화했으나 일본(2000년 기준)의 11.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속했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는 2000년 0.633에서 2003년 0.647로 높아졌으나 95년의 0.698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일본의 0.892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편이다. 수출의 부가가치유발 계수가 0.647이라는 것은 1천원어치 상품을 수출

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해외로 부가가치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부문에 수입 부품·소재 의존도가 32%대에 달하기 때문에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지는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낮아지는 등 수출의 취업유발효과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은행 수수료 인하 경쟁 불 붙었다

국민은행 이어 光銀·외환은행도 조만간 시행 할 듯

국민은행이 은행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광주은행도 조만간 인하할 방침을 정하는 등 은행들의 수수료 인하 경쟁이 불붙고 있다.

국민은행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2일부터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우선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중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는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한 송금 수수료는 송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에 자행이체 건당 2천원, 타행이체 4천원이었지만 앞으로 1천500원과 3천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광주은행도 자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해 주던 급

여우대통령을 타행 송금에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각종 은행 수수료 인하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외환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수료 구분 내용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수수료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은행의 수수료 인하 내역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식 평가액 100억 이상 미성년자 '주식 부호' 11명

재벌오너일가 보유집계

주식 평가액이 100억원을 넘는 재벌가 '미성년자 주식부호'가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기업 경영정보를 수집·배포하는 재벌닷컴(www.chabul.com)이 지난 5일 장가를 기준으로 재계 오너 일가족 5천700여명의 상장사 보유주식 자산을 집계한 결과 주식 평가액이 1억원이 넘는 재벌가 미성년자(1989년 1월 이후 태어난 만 19세 미만)는 모두 75명으로 이들의 주식 평가액은 총 3천335억원에 달했다.

또 10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주식 부자는 총 44명이며 이중 주식평가액이 100억원이 넘는 미성년자 주식 부자도 광주지역 상장업체인 대우디앤씨 박영우 회장의 장·차녀 등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동선(17)씨는 ㈜한화 주식 125만주(1.67%)를 보유해 주식평가액이 39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경배 태평양 사장의 장녀인 민정(15)씨도 보유 주식의 가치가 3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민정씨는 아버지로부터의 증여 등을 통해 아모레퍼시픽 우선주(8.43%), 태평양 우선주(26.48%) 농심홀딩스(0.23%) 등을 보유하고 있어 올해 태평양과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각각 3억원,

성명	관계	평가액
김동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407억5천만원
서민정	서경배 아모레퍼시픽회장 장녀	372억9천만원
전동영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 장남	276억3천만원
구용모	구본식 회성전자 사장 장남	274억4천만원
윤태현	윤정섭 성보실업 회장 조카 손자	159억
허석홍	허용수 승산시장 장남	144억7천만원
박근은	박영우 대우디앤씨 회장 차녀	139억9천만원
박은희	박영우 대우디앤씨 회장 장녀	139억9천만원
구연재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장녀	113억2천만원
허정현	허태수 GS홀딩스 부사장 외동딸	109억9천만원
허원홍	허창수 GS 홀딩스 회장 친인척	108억9천만원

* 평가액: 5월 중 기준

4억원의 배당금도 받게 됐다 고 재벌닷컴은 전했다. 또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의 장남인 동영(12)씨의 주식 평가액이 274억원에 이르며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구본식 회성전자 사장의 장남인 용모(17)씨(252억원) 등 주식부호 반열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수기자 bungy@